

장년으로서의 협회의 책임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 영 복

간호협회는 간호원들을 위한 간호원들의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직업 단체 중에서도 우리 협회에 대하여 우리들은 여러모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半世紀의 역사, 의무를 다하는 6천여 회원들, 든든한 支部조직, 길어가는 국제적 유대, 아담한 우리들의 새 회관에서 활동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목적을 향해 뭉쳐지는 크나큰 단결의 힘 등 그 어느 단체보다도 자랑할 점이 많음은 회원 아닌 第三者들도 인정해주는 사실로 알고 우리들은 또 한번 자부해 본다.

간호협회는 이제 하나의 으젓한 壯年으로 그 모습을 갖춘 것이다. 한 인간이 壯年이 되기까지에도 허다한 숨은 노력과 많은 사연들이 열켜 있듯이 하나의 조직체가 장년이 되기까지에는 마음과 힘과 시간의 結束으로 이루어진 끊임없는 활동과 보이지 않는 투쟁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지나간 일들, 즉 壯年이 되기까지의 來歷과 거기에 숨은 추억이나 회고를 想起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오늘 壯年의 눈으로 보는 엄연한 現實과 壯年으로서 걸머져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少年期와 青年期에는 自身の 준비와 발전에 정력을 기우린다. 그러나 장년기에는 자기 몫 외에도 책임져야 될 일이 많고, 가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해야 될 일도 많다.

우리 회도 視野를 넓히고 次元을 높여서 앞장서서 개척하고, 갈피를 찾아서 처리하고 對象을 바로 정하고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은 줄 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건설적으로 일할 때가 되었고 또한 일할만한 준비와 기반도 서 있는 줄 믿고 싶다.

아마 이 時點에서 가장 크고 또한 중극적인 우리의 課題는, 국민대중, 즉 被看護者들이 올바른 간호와 보건의 혜택을 받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看護員은 있으나 看護不在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기관은 없는가? 保健政策이 있고 保健所는 있으나 保健 以前의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 과제를 계속적으로 또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회원들은 여러 모로 노력하고 단결해야 되겠다.

우리 각 회원들이 자신의 力량을 길르고 職業倫理를 固守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그 날까지 맡은 책임을 완수해야겠다. 간호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점이 확실히 들어나야겠다.

한편 社會의 움직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도 대중을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동시에 간호에 대한 그들의 바른 見解도 촉구 해야겠다.

물론 協會의 이름아래 해야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데 협회란 組織이요 이름이지 협회 자체가 機動力이나 思考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協會라는 큰 기둥을 중심한 會員 각자가 생각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활동하고 협조함으로써 나라를 위할 또는 회원을 위한 협회의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즉 아무리 有能한 개인이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평범한 회원들의 단결과 組織力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成事를 보게된다.

회원들의 경제복지와 직권옹호문제, 看護法을 위한 建議와 立案, 실시문제, 타 의료보전단체와의 유대문제, 간호교육제도의 계속적 검토, 간호補助員의 지도감독문제, 해외진출의 질서문제 對民奉仕문제 등등이다. 協會에서 自律的으로, 能動的으로 솔선해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 모든 일들은 회원들의 關心과 熱意, 各支部를 통한 구체적인 意見과 支援 없이는 참으로 벅찬 일들이다.

대개의 경우, 조직체를 통한 일이란 그 威力은 크지만 개인적인 경우와 같은 모험이나 순간적인 또한 기분적인 결단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도 拘束을 받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民主的인 選出, 民主的인 決議, 그리고 民主的인 實施過程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 회원들의 단결과 이해가 오늘의 자랑스런 協會의 모습을 가져왔다는 壯年으로서의 자부심을 피력하면서 회원들의 더 알찬 협조와 유대가 會員과 會員 사이를, 支部와 支部사이를, 支部와 本部사이를 피차 서로 격려하고 지원해감으로써 더 큰 結實이 있기를 믿고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